

2/22/26

설교 제목: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는 예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8 장 1-17 절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5; 눅 5:12-16)**

(마 8: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 8:2)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디 하거늘

(마 8: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 8:4)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눅 7:1-10; 요 4:43-54)**

(마 8: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마 8:6)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 8:7)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마 8: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마 8: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 8: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 8: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 8: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 8: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막 1:29-34; 눅 4:38-41)**

(마 8: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마 8:15)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 8: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 8: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짚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는 본장에서 산상 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들을 언급  
합니다.

수많은 귀신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마태는 이들에게 구약 성경 이사야 53 장을 인용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사 53: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 53: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 53: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언급한 후 예수님이 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 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의 권세있는 가르침에 놀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 8: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귀신들린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그외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사례들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전하고자 군더더기를 모두 제거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만 집중하여 말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살인죄로 간주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그를 치료 하셨습니다.

(마 8:2)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대 하거늘

(마 8: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 8:4)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 경우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정결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침을 받은 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4 장의 정결 규례 곧 율법을 따르고 계신 것입니다.

(레 1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14:2)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레 14:3)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레 14:4)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 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레 14:5)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레 14:6)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레 14:7)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 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레위기 14 장에 의하면 나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정결한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제사장은 그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 피를 신선한 물과 혼합한 다음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사용해서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에게 뿌립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날려 보내는데, 이는 사회와 사람을 괴롭힌 문제를 날려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와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나병 환자의 비참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를 치료해 나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는 길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받은 사람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혹은 민족의 해방자로 인식하여 당신의 사역에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것과 당신이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인기를 얻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찾아와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로마 사람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권세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가서 고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직업 경험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치유될 것임을 확신하며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네 믿은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마 8: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마 8:6)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 8:7)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마 8: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마 8: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 8: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 8: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 8: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 8: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나 본 나라 유대 자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으신 종말론적 새 백성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계기로 구속사를 설명하십니다.

믿음은 이방인을 하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백부장과 같이 오직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를 고치십니다.

(마 8: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마 8:15)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 장모가 앓은 열병은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해 있어 어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곡식도 풍성해 살기 좋은 지역이었지만 말라리아가 흔히 발생했습니다.

말라리아는 당시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치유를 받은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에 감사해서 예수를 섬기는 공동체이며 교회의 직분 역시 예수님을 수종드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귀신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자 사람들이 많은 귀신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이들을 다 고치십니다.

(마 8: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53 장 4,5 절에 예언된 고난의 종에게 부여된 사역을 성취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 8: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서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통해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당신이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절고와 결핍을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절고와 결핍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육신의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